

현대건축에서의 단일체적 조형 성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nolithic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주저자 : 류호창 (Lyu Ho-Chang)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이 논문은 2003학년도 건국대학교 연구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단일체의 건축적 의미 및 생성적 배경

- 2.1. 단일체의 건축적 정의
- 2.2. 단일체 건축의 역사성
- 2.3. 표상으로서의 단일체

3. 단일체의 조형적 특성

- 3.1. 형태적 특성
 - 3.1.1. 표현적 절제
 - 3.1.2. 독립 개체성
- 3.2. 표피를 통한 표현성
 - 3.2.1 독립된 건축 시스템으로서의 표피
 - 3.2.2 표피의 투시성 변화
 - 3.2.3 접합 디테일을 통한 표현
- 3.3. 단일체 건축의 개구부

4. 단일체적 외형과 실내공간의 구성

5.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는 다원화된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인 단일체적(monolithic) 표현 성향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건축적 표현 중에서 단일체 건축은 형태적 산만함이나 분열, 이론에 치중한 형태적 복잡성의 난해함을 대치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현시대의 불안정성, 불확정성, 유동성 등이 강조되는 아방가르드적인 건축이론이나 작품경향에 반해 건축의 위상과 자율성 확립을 통한 반발이기도 하다. 이런 단일체 건축은 단순하고 경제적인 구조를 빈틈없는 외피로 감싼 형태적 엄격함을 보여주면서 인식이 용이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갖춘 형태의 자립형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외관의 추상적 형태를 이용해 형태묘사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거나, 크기나 스케일을 과장함으로써 존재감을 강화시키기도 하며, 색, 재료, 마감, 단면형태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중재하는 표피를 전략적으로 탐색하기도 한다. 이런 단일체 건축은 오늘날의 다중적이고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건축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nolithic' architecture. The intentions of monolithic architecture can be assumed as an attempt to replace the formal looseness or difficulties of understanding formal complexity of modern architecture, or a trial to react against contemporary avant-garde architectural tendency typically characterized as unstableness, uncertainty, fluidity, and articulation to reestablish autonomy of architecture.

Buildings in this category coincide in their extreme economy and simplicity of overall form and consistency of external appearance while showing great expressional capacity with very limited formal means. Even though monolithic architecture still seems a little unstable and ambiguous in historical aspects, it can be considered as strikingly shaped objects or autonomous forms with identities, logics, and representation that promote recognition.

Using architectural techniques of scale, colors, materials and finishes, monolithic architecture shows strategically invested surfaces that mediate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and shows unexpected and mysterious autonomy. This kind of monolithic approach is also found in interior space as a separate objects that contain functional space inside, or as formal elements that overflow the boundaries of conventional architecture by eliminating the distinction between floor, wall, and ceiling.

(Keyword)

monolithic, autonomy, simplicity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근래에 들어 많은 건축적 표현에서 문화와 사회의 조건변화를 다루려는 취지에서 다양한 형태적 제안이 이루어졌다. 그런 제안들은 시대정신을 일깨우는 논제와 구성적 전략을 규범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으로부터 표현적 코드와 인습에 대한 비평적 자세에 이르기까지 폭 넓다. 그런 작품들 중에는 단일체의 외형적 구성을 통해 주변 환경에 강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주목을 받는 건축 작품들이 있다. 아직도 공사 중에 있거나 실현되지 못한 작품도 많이 있지만, 그런 작품들이 건축 잡지에 소개됨으로 인해서 종종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판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일견 이런 단일체적인 작품들은 서로 공통점이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형태, 재료, 스케일, 공간 프로그램 등에서 보이는 차별성에 의해 미적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건물들의 확연한 개체성을 넘어서 공통적인 형태적, 양식적 특징을 인지해내려는 노력은 계획적인 의도에 불과하거나, 개성적인 작품들을 억지로 유형화시키려는 헛된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단일체적 작품들의 공통적 특성을 찾아 분석해보는 것이 굳이 이런 흐름을 건축의 새로운 경향으로 수렴하려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원화된 현대건축의 흐름과 공존하는 하나의 이형적 건축의 표현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다양한 건축적 표현 중에서 단일체적 조형성향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건축 환경에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에 본 논문의 의미를 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포괄적 의미에서 단일체적 특징을 가진 구조물은 단지 조형적 요소로만 활용되는 경우와 그 내부가 실용적 공간의 기능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실용적 공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만이 해당된다. 또한 '단일체'의 엄격한 언어적 정의에 의존한다면 하나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작품만이 해당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단일체의 특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구조물이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진 작품도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실행되지 않은 계획안 이더라도 개념을 이해하기에 더욱 명료한 경우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모더니즘 건축을 포함하여 최근의 건축까지를 모두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작품 사례는 주로 단일체적 특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건축의 형태적 특성과 실내공간의 구성적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단일체 건축의 정의 및 생성적 배경을 문헌을 통해 정리하였고, 둘째, 사례 분석을 통해 단일체 건축의 형태적 특성, 표피 및 개구부의 표현적 특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외부 형태와 실내공간 구성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2. 단일체의 건축적 의미 및 생성적 배경

2.1. 단일체의 건축적 정의

기념물을 제외하고 건축은 거주를 위한 공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단일체적(monolithic)'이라는 어휘가 문어적으로 속이 들어찬 재료의 고형성을 의미한다면, '단일체적 건축(monolithic architecture)'은 언어정의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법상 '단일체적(monolithic)'을 '단일체와 같은(monolith-like)' 또는 '유사단일체(quasi-monolithic)'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완전히 속이 찬 고형의 동질성을 의미하기보다는 동질성이나 고형성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¹⁾ 따라서 대부분의 건물이 내부의 실용적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단일체적'이라는 표현은 한 덩어리의 단일체(monolith)로서의 물리적, 재료적 특성은 없으나 은유적으로 건물구조가 예외적으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구조를 과장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은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일체적'이라는 표현은 재료적 특성을 말한다기보다는 표현상의 전략을 의미하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단일체'는 기본적으로 표상적 스타일을 지칭한다.

외형적 관점에서 단일체 건축은 형태의 단일성과 함께 단순한 외양으로 부각되는 건물이 해당된다. 다시 말해 외양이 단순하여 그 정연함이 즉각적으로 인식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재료와의 이상적 결합을 통한 개념적 완결성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현대건축에서 이런 단일체 건축은 형태 및 상징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맥락적 의미에서의 다양성은 단순히 형태의 문제를 넘어서 이데올로기와 철학적 관점을 포함한다.

간결한 형태를 만드는 경향이 건설과정, 고유의 프로그램, 주변 대지 상황, 기후 조건 등과 밀접한 영향이 있지만 이런 변수들이 항상 전체 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간결한 형태의 근원적 경향은 건물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에 대한 건축가의 믿음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런 건축가들은 건물의 형태를 통해 의사전달이 가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멀티미디어시대에 상징적이거나 도상적인 형태에 의지하지 않고, 설계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를 비구상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를 통해서만이 중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²⁾

2.2. 단일체 건축의 역사성

건축 역사상 가장 단순한 단일체적 조형물로는 피라미드를 들 수 있으나 피라미드는 오벨리스크와 같이 단일부재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축조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피라미드 이후 단순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은 18세기 프랑스 건축가 루이 불레(E. L. Boullée)의 뉴턴 기념탑으로서 당시의 화려하고 복잡한 디자인에 대한 반발로 극명하게 단순한 구의 형태를 생각하였다. 이 건물계획안은 피라미드 이래 단순 조형을 추구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는데³⁾ 이런 구상은 당시 단일체적 구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 이후에는 표현주의 건축가들이 조소적 형태의 공간

1) Rodolfo Machado & Rodolphe el-Khoury, *Monolithic Architecture*, Prestel, New York, 1995, pp. 15-16.

2) 전계서, p. 62.

3) 김홍기, *건축조형디자인론*, 기문당, 2001, p. 55.

구성을 통해 자유로운 조형의지를 보여주었고, 구성주의 건축에서도 역동적 공간구성을 통해 비정형적이고 동적인 건축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형태주의 건축운동을 통해 많은 건축가들이 조소성이 강한 자유형태의 건축공간을 추구하기도 했다. 그런 형태주의 건축의 자유공간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 첫째 기하학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조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과 다른 하나는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을 추구하는 무정형적 공간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현대 건축의 흐름도 크게 기하학적이고 정형적 건축을 추구하는 경향과 비기하학적이고 탈정형적인 건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경우 현대건축의 피폐한 다양성과 대조적으로 냉정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재정립하려는 취지에서 등장한 것으로 생각되고, 미니멀리즘과 쟈 스타일이 부각되면서 더욱 그 세력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기능보다는 형태를 다소 우선시하면서 조소적인 형태를 선호하는 작품으로 나타난다.⁴⁾ 단일체 건축은 일반적으로 전자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에 힘입어 비기하학적인 유기적 형태의 설계 및 시공이 용이해짐에 따라 조소적 성격의 단순한 유기체적 형태의 건축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런 단일체적 성향의 발현은 건축의 자율성 추구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힐버자이머(Ludwig Hilberseimer)는 건축의 자율성을 명료함, 논리성, 정신적 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자기 패션(self-fashion)이라고 은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기하학적 요소와 육면체적 요소는 더 이상 객관화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육면체, 구, 피라미드형, 원통형, 삼각기둥 등과 같은 가장 근원적인 형태에 근거한 건축은 모든 건축 형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⁵⁾ 이런 건축은 자체의 객관성, 지향성, 그리고 단순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런 경향은 건축적 자율성을 향한 것으로 외부의 영향이나 전통에 의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건축수단을 통해 자기결정적으로 목표를 실현하려는 건축의 시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3. 표상으로서의 단일체

최근의 단일체 건축에서 보이는 현상들은 몇 가지의 기능적 근원에 기인하는데, 첫째는 건축의 의사전달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의 역사적 발달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근원은 서로 상관되어 있지만, 의사전달 기능을 중심으로 한 표상적 특성을 주된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측면의 실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형이상학적, 상징적 측면을 건축가의 인식과 재해석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표상이라고 정의한다면, 단일체 건물은 기존 건축에 대한 역설적 표상의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역설적 표상이란, 단일체적 특성을 심미적 전략으로 다듬고, 최대한으로 현실화시

키고자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급진적이지만, 내부공간과 외관과의 상관적 진실성, 프로그램, 컨텍스트 등의 관점에서 보면 정성들여 만든 형태가 이질적으로 보일 때 그런 건축의 영속성과 견고성을 스스로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따라서 이런 건축은 용도나 시공성 등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표상의 문제와 더 큰 연관이 있다. 즉 기능적 효율성을 논하기에 앞서 이런 건축의 형태를 생성하게 만든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단일체 건물은 즉각적으로 교감을 얻게 하거나 감정이입을 촉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쇼핑몰로 대표되는 상업건축의 몰개성적인 무덤덤한 상자와는 달리 단일체 건축은 내향적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파시적이다. 그런 건축의 외형적 질체는 형태와 재료를 단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고, 의도된 효과를 위해 극도로 절제된 것이다.

3. 단일체의 조형적 특성

3.1. 형태적 특성

3.1.1. 표현적 절제

프르뷔지에는 “육면체, 원뿔, 구, 원기둥, 피라미드 등은 빛에 의해 명쾌하게 드러나는 훌륭한 기본 형태들이다: 이들 형태들의 이미지는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것으로 아름다운 형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⁷⁾라고 했다. 이런 순수한 형태는 역사적으로 일관되고, 이론적으로 확고하며, 기하학적으로 인식이 쉬운 것이다. 이런 기하학적 객체는 고유의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형태의 견고성을 통해 자율성을 표출한다. 이런 형태의 건축은 더 이상 함축할 수 없는 이상적인 기하학적 요체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결적 예술 세계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최소한의 매개적 한계를 찾는 작업으로 설명되는 미니멀리즘과 상통한다. 건축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구성상의 강한 단순성과 일관성은 공간프로그램, 재료, 시공기술 등의 처리에서 일관된 차별성을 보여준다. 형태의 단순함은 조형적 언급을 하나의 웅변적 표현으로 압축하여 건축적 형태를 통한 표현적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단일체 건축도 극도의 표현적 절제와 전체적인 형태의 단순성, 외형의 일관성 등에서 이와 맥을 같이 하며, 이런 제한된 형태적 접근을 통해서 강한 호소력을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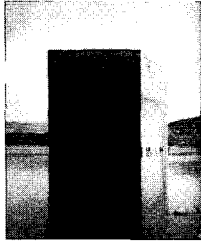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근래의 단일체 건축은 정형적이고 기하학적인 유형과 탈정형적이거나 비기하학적인 유형으로 이원화된다. 예를 들어 장 누벨의 Monolith Expo 02(그림 1)와 같은 작품들은 매우 단순한 기본적인 형태를 채용하는가 하면, 또 다른 작품들은 형태는 다소 복잡적이지만 매우 명백한 하나의 어조로 표현충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대담한 형태를 통해 명료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때로는 엄격하게 전체 볼륨이 억제된 가운데 평면적으로나 단면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성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한 덩어리의 매스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단일체 건축에 포함된다. 피터 아이젠만의 ‘맥스 라인하트 하우스’(그림 2)가

4)장훈익/김영태, 현대건축에 있어서 탈정형적 공간구성의 다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2호, 2004, pp. 123-125.

5)Rodolfo Machado & Rodolphe el-Khoury, 앞의 책 p. 46.

6)이정열, 현대건축 표피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0호, 2003, p. 11.

7)르 프르뷔지에(장성수/장성주 역),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태림문화사, 1999, p. 32.



<그림 1> Jean Nouvel, Monolith Expo.02, Morat, Switzerland (2001)

요구 등을 무시함으로써 현대 건축문화에 새로운 이슈를 제 공하고 있다. 로버트 벤츨리는 추상에 대한 경멸을 표시하면서 은유적인 표현방법과 직설적인 표현방법을 설명하고 있



<그림 2> Peter Eisenman, Max Reinhardt Haus 계획안(1992)

대표적 사례로서 절제되고 단순한 형태는 아니지만 외형의 일관성을 지닌 탈정형적 조형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효과적인 지지구조와 과장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동원하여 피비우스 띠 형상의 철구조 건축물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램 콜하스의 CCTV 건물도 유사한 사례이다.

이런 단일체 건축은 양식적 엄격함, 역사적 진실성, 구조적 정직성에 대한 이런 단일체 건축은 양식적 엄격함, 역사적 진실성, 구조적 정직성에 대한 요구 등을 무시함으로써 현대 건축문화에 새로운 이슈를 제 공하고 있다. 로버트 벤츨리는 추상에 대한 경멸을 표시하면서 은유적인 표현방법과 직설적인 표현방법을 설명하고 있

3.1.2. 독립 개체성

단일체 건축의 단순성이나 정직성은 쉽게 주변의 맥락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런 건물들의 엄격한 형태는 주변의 외적 영향을 무시하는 듯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단일체 건축은 지역성에 비추어 매우 대조적이다. 이렇게 격리된 분위기의 단일체 건축은 지역적 재료나 건축 방식, 토착적인 유형 등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런 건물들의 비타협적인 형태의 완결성은 여전히 주변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인식된다.

이런 단일체 작품은 종종 균질한 독립개체를 강조하다보면 일반적인 건물에서 보이는 건물의 기초 부분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거나 단순히 중력에 의해 땅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종종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마치 과중한 중량으로 인해 땅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각적 착각이다. 오히려 몇몇 단일체 작품들은 가벼운 구조임에도 무거운 중량감을 표현하려고 고도의 기술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일체적인 작품은 건물 외장의 재료적 특성으로 투명성을 표현하려는 작품은 많지 않지만 최근 투명 또는 반투명 재료를 사용하되 단일체적 특성을 유지하려는 작품들이 발표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형태적으로는 단일체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최근 표피의 비물질화, 경량화, 투명화 등의 흐름과 결합하여 다소 경량화된 이미지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8) Rodolfo Machado & Rodolphe el-Khoury, 앞의 책, p. 59.

경량화되는 경향과 함께 단일체 건축에서 보이는 또 다른 현상 중의 하나는 수송수단과 같은 형태적 특성인데, 형태적인 이동성을 암시함으로써 해서 주변건물의 고정적인 이미지를 부정하여 독립개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퓨처시스템즈의 그린빌딩계획안, 마사키 엔도의 Natural Ellipse(2002), 피터 쿡의 쿤스트하우스(Kunsthau, Graz, 2003)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단일체 건축의 독립개체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주변의 시각적 간섭 요소를 최소화시키려는 건축가의 의도가 표출되기도 한다. 일례로 인접 환경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수공간을 건물 주변에 형성하거나 동떨어진 부지에 위치시킴으로써 주목성을 증대시키기도 하는데, 폴 앙드류(Paul Andreu)의 북경국립극장(2005)이나 장 누벨의 'Monolith Expo 02'(2001)가 이런 예에 해당된다.

작품명	사진	독립개체적 특성
Herzog and de Meuron, Prada Aoyama, Tokyo(2003)		외피의 패턴 등이 일련의 전통적인 건축요소로부터 얻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독특한 형태와 외피의 디자인을 통해 단일체적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Paul Andreu, National Grand Theater of china, Beijing (2005)		극히 절제된 형태를 통한 독자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주변을 물로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격리효과와 함께 시각적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
Masaki Endoh and Masahiro Ikeda, Natural Ellipse, Tokyo (2002)		단순한 유기적 형태의 특징과 함께 단일피막 기술을 활용한 작품으로, 단일체의 근원적 특징의 하나인 중량감은 부족하나 단일개체성이 강조되고 있다.
Future Systems, The Green buinding 계획안(1990)		임박한 출발과 영원한 인식을 함께 추구하려는 갈망을 표현하기라도 하려는 듯한 풍선 기구의 동결된 움직임을 통해 주변의 고착된 이미지와 대비되며 독립개체성이 강조된다.

<표 1> 단일체 건축의 독립개체성

9) 이 건물은 전체적 구성상으로는 단일체 건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상부의 주된 구성적 요소가 단일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3.2. 표피를 통한 표현성

3.2.1 독립된 건축 시스템으로서의 표피

공간의 형태를 만드는 표피는 공간구축을 위한 가장 최초의 수단으로 공간을 둘러싸는 근원적 요소이다. 프램톤(Kenneth Frampton)은 건축의 논리에서 표피는 재료의 본질과 건축의 논리를 통해 동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담는 장이며 건축적 실체를 기반으로 사회와 문화를 담는 장이며 건축적 실체를 기반으로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예술적인 형식, 즉 상징구조와 표상적 텍토닉 영역의 제일요소가 '둘러싸는 막'으로서의 '표피'라고 했다.¹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더니즘의 무뚝뚝한 조각을 "통일체로서의 전형, 합리성의 전형, 공예적 완성의 전형이며, 고정되고 안정적인 형태의 본보기"라고 한 모리스(Robert Morris)의 지적대로 오브제 자체와 그 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대 조각의 실체와 동기의 관계는 '표피의 의미부여'와 유사한데, 어떻게 외부면에 의미가 부여되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만약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말대로, 미니멀리즘을 "표피에 대한 관심, 회화나 3차원적인 조각에 관계없이 작품에 덮여있는 재료에 의해서 형성되는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지움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그 물리적 매체와 연관 짓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관심은 현대미술이나 건축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¹¹⁾ 1930년대 이후 코르뷔제도 콘크리트의 물성 실험을 통해 일괄적 질감이나 재료의 마감을 통해서 외피 표면의 표현성을 실험하고, 즉물성을 강조하여 불투명의 추상성을 강조하는 시험을 계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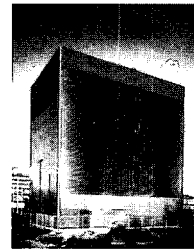
많은 단일체 건축에서도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표피를 통해 단일체를 표현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일부 단일체 건축의 얇은 표피는 전통적인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통합적 관계성이 부족하다. 즉, 단일체 건축의 표피는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형태나 재료적 특성이 내부적인 조건(프로그램상, 단면상, 면적상)과 외부의 상황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전통적인 건물의 입면과는 달리, 단일체 건물의 표피는 그런 조건과는 성격상 독립적이다. 그런 건물들은 본체로부터 분리되려는 경향의 독특한 형태적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런 표피는 외형적 특징을 가지지만 추상화되고 양식화되었다. 전통적 건축의 입면이 건물의 발생적, 형태적 특징의 외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단일체 건축의 표피는 인위적이고 과장된 포장을 연상시킨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건축 시스템으로서의 표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건물을 수용한다. 즉 복합적인 건축 프로그램을 하나의 포장으로 감싸는 것과 같은데, 설치작가인 크리스토프와 장 끌로드(Christo and Jeanne-Claude)가 건물 전체를 천으로 감싼 작품을 연상시킨다. 제한된 두께와 공간적 표현 내에서 건물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조성된 건축적 의미를 농축하여 전달하려는 것이다.

이런 단일체 건축의 두드러지는 외피적 특성은 구축법에서도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건물의 기초나 지붕을 디자인에서 차별화하지 않거나 외피 패턴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완

전히 연속시켜 건축적 관례나 역학적 기초를 무시함으로써 주변과의 연대성을 무시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외피의 획일적인 처리는 단일체 건축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것은 곧 균질하고 독립적인 객체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3.2.2 표피의 투시성 변화

단일체 표피는 원래 중량감과 함께 불투명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지만 앞서도 거론했듯이 현대건축에서의 비물질화, 투명화 경향과 결합하면서 표피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질적인 것과 재료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이음매가 없는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표피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헤르조그와 드 피론은 빛과 재료와의 관계를 작품을 통해서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그널 박스(그림 3)에서는 연속된 동판피의 교묘한 변형을 통한 투시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건물 전체의 투시성을 조절함과 동시에 개구부 앞에서는 동판피의 조각을 통해서 투시성을 더욱 크게 조절하고 있다. Laban 센터



<그림 3> Herzog & de Meuron, Signal Box, Basel (1995)



<그림 4> Herzog and de Meuron, Laban Centre, London (2003)

(그림 4)의 경우에는 시그널 박스에서와 같은 통기성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한 재료와 반투명한 재료를 적절히 혼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반투명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반투명체의 표피는 내부의 조명을 투과시킴으로써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단일체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UN 스튜디오의 Bascule Bridgemaester's House(그림 5)도 반투시 재질의 외피를 사용하여 낮과 밤의 빛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단일체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즉 주간에는 내부의 조명효과가 없어 단순한 형태가 더욱 강조되며 단일체적 특성을 나타내고, 밤에는 실내조명에 의해 입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전체 건물을 감싸고 있는 반투시성 표피에 의해 단일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UN Studio, Bascule Bridge and Bridgemaester's House, Purmerend, Netherlands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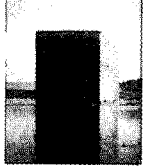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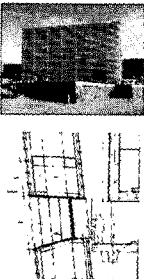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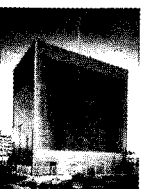
3.2.3 접합 디테일을 통한 표현

단일체 건축은 토템으로서의 권위적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폐쇄적 또는 자기봉쇄적이다. 특히 접합부가 최소화된 결합방법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대형 피복체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구조의 복잡성을 감추는 시공 디테일을 통해서 그런 권위를 표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접합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시공된 석재 표면은 마치 단일체의 묘비와 같은 무언의 호소력이 있으며, 실리콘 접합부가 쉽게 인식되지 않는 착색

10) 이정열, 앞의 논문, p. 11.(재인용)

11) Rodolfo Machado & Rodolphe el-Khoury, 앞의 책, p. 43.

유리의 단일체 건축 역시 우리의 호기심을 증대시킨다. 루디 릭시오티(Rudy Ricciotti)의 비트롤레스 스타디움(그림 6)은 노출 콘크리트를 이용해 단일체 구성을 보여주면서 표면을 거칠게 처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거꾸집에 의한 그리드 패턴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산발적으로 배치한 작은 창은 건물을 하나의 매스로 인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의 Asahi Beer Azumabashi Hall(그림 7)의 경우에도 매끄럽게 처리된 검은 화장석의 정교한 접합부위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일체로 인식시키려는 건축가의 의도가 보이며, 결과적으로 거석 문화에서 느낄 수 있는 신비로움과 권위를 표출하고 있다.

작품명	사진	표피적 특성
Jean Nouvel, Monolith Expo.02, Morat, Switzerland (2001)		전체를 연속된 그리드 패턴의 포장 재료로 감싼 듯한 형태로, 일체의 건축 역학적 표현이 감추어진 단일의 폐쇄적 표피 구성
Rafael Moneo, Kursaal Cultural Center and Auditorium, San Sebastian, Spain(1999)		본체와의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두고 외피가 형성되어 깊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으며, 빛이 투과되는 그리드 패턴의 반투명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 조명에 의해 밤낮의 표정을 다양화시킴.
Philippe Starck, The Baron Vert, Osaka (1992)		전체적으로 하나의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외피에 칼로 벤 듯한 개구부를 만들어 피막의 두께감을 부여하고 있다.
Herzog & de Meuron, Signal Box, Basel (1995)		연속된 동판띠로 건물을 전체를 반투명적으로 둘러싸으로써 투시성의 변화를 유도하고 건물 전체를 단일체로 인식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표 2> 표피의 표현적 특성

3.3. 단일체 건축의 개구부

단일체 건축에서의 출입구는 역사적으로도 건축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피라미드를 보더라도 입구 디자인에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단일체 건축의 밀폐형 표피에서도 역시 출입구를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어려움은 고정성을 강조하려는 단일체 건축의 형태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단일체 건축의 매끄럽고 연속적인 면은 돌출된 구조나 틈새, 입구를 나타내는 부가물 등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표피의 파열구는 동시에 안이 비어있음을 암시하게 되고, 한 덩어리의 돌과 같은 단일체의 효과를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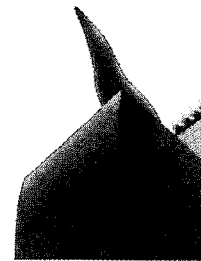
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속이 찬 고풍물로 보이게 해야 하는데 이런 파열구는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단일체 건축은 내재적으로 속이 빈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구부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축에 있어서 창문이나 출입구는 여전히 특별한 처리를 필요로 하며, 불가피하게 일반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루디 릭시오티(Rudy Ricciotti)의 비트롤레스 스타디움(그림 6)의 경우 검고 거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단일 육면



<그림 6> Rudy Ricciotti, Stadium à Vitrolles, Vitrolles, France (1994)

체는 거석문화적인 단순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매스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크기지만 별모양의 창을 통해 빛이 새나오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담아내는 융통성을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단일체적 특성을 유지하려는 건축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¹²⁾ 이와 유사



<그림 7> Philippe Starck, Asahi Beer Azumabashi Hall, Tokyo (1989)

한 사례로 Asahi Beer Azumabashi Hall(그림 7)의 경우에도 옥상의 불꽃 모양의 조형물을 제외하면 검은 화장석제의 단일형태의 매스로 이루어졌는데, 건축가는 이런 단일형태의 조형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단순한 형태, 정교한 접합 디테일과 함께 극히 절제된 크기와 형태의 원형창을 설치하였다.

헤르조그와 드 피론의 시그널 박스나 필립 스타크의 배런 버트(Baron Vert)의 경우에도 창문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시그널 박스'

의 경우 표피의 동판띠로 이루어진 방벽은 점진적으로 비틀려져서 창문 앞에서만 투시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낮에는 반투명의 가면과 같은 동으로 된 띠에 가려서 창문이 거의 인식되지 않지만 밤이 되면 인공조명에 의해서 일면의 주된 특징으로 자리한다.

단일체 건물에서는 표피를 절단하거나, 겹거나, 비틀거나 함으로써 폐쇄적인 건물에 개구부를 만들고, 빛이 나오는 부분을 만들기도 한다. 표피를 순응성 있게 함으로써 내부의 압력이나 외부 작용, 시간의 경과 등에 반응하게 함으로써 복합성과 역동성을 함께 나타내려는 의도이다. 이런 효과는 주관성과 객관성간의 관계나 시간과 운동의 개념, 환경에 대한 인식능력 등에 따라 좌우되며 건물의 자율성과 함께 변화를 한 이미지 내에서 수용하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필립 스타크의 배런 버트에서는 폰타나(Lucio Fontana)의 회화를 연상시키듯이 당겨진 천을 칼로 벤 듯한 형태를 만들어 개구부를 만들고 있다. 결국 거대한 구조를 피막으로 감싸고 표면의 틈새를 통해 피막을 두껍게 느끼도록 하면서 육감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배런 버트의 창문은 멀리서 보면 인식되지만, 가까이 밑에서 볼 때는 단지 하나의 굴곡진 벽체로 인식되어 일층 로비의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불투명체로 보인다. 개구부를 감추려는 의도는 결국 이

12)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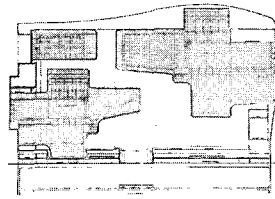
런 단일체 건축의 양면적 의도가 축약된 것으로 건물의 일체성과 형태적 완결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창문이 거의 필요 없는 경우에 오히려 역동적인 개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을 찾기도 한다. 모네오의 쿠어잘 문화센터(표 2의 그림 참조)의 경우에 개구부를 통해 만들어지는 긴장감이 없다면 단순히 진부하고 지루한 박스로 전락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극명한 음영대비를 이룬 개구부가 건물의 단일체적 특성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헤르조그와 드 뫼론의 Laban 센터(그림 4)의 경우에서도 투명한 창과 함께 극명한 음영을 이루며 시각적으로 부각되는 일부 개구부는 오히려 단일체적 특성을 강화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효과는 쿠어잘 문화센터에서 보여주는 개구부의 표현과 유사하다.

4. 단일체적 외형과 실내공간의 구성

건축은 크게 나누어 공간의 형태나 구성을 인지할 수 있는 외관 또는 구조를 가진 건물과 공간의 구성을 전혀 암시하지 않는 건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꼬르뷔지에를 포함한 근대건축가는 외피 표면이 갖는 표현성보다는 외피와 내부공간, 기능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외피를 내부공간이나 분위기를 반영하는 매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매스를 장식하거나 마음대로 흡수해 버리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경계하였다.¹³⁾ 하지만 단일체 건축은 부분을 전체와 연관시키는 건축의 고전적 교리에 역매이지 않고, 외부와 내부의 성격과 성향의 불일치를 굳이 감추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단일체 건물들은 이런 괴리를 역설하고 있으며, 많은 20세기 건축과는 다르게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차별화된 도상적, 입체적 구성요소로 역지로 구체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구조와 장식에 대한 혼돈으로부터 회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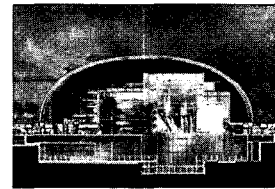
내부 구조체의 구축방식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 외피는 어떤 공간의 다음에 올 공간을 연상시켜 공간체험은 과정적, 연속적 특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외피가 구조체의 역할을 벗어나 단순히 내부와 외부의 중재적 역할만을 하게 되면 내부공간의 변화 폭은 커지고, 수직, 수평 구조나 중력에 순응하는 축조방식에 익숙한 관찰자에게 얇은 커로 된 외피는 인습적 공간읽기를 어렵게 한다.¹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의 단일체 건축은 외견상으로는 동질성과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형태나 구조 시스템, 재료 등에 의해서 구별되는 대조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건물들은 내부공간의 복잡성은 거의 보여주지 않고 외견상으로만 통합되고 연속된 외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일체의 입체이지만 재료나 형태적으로 볼 때 비어있는 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스폰지와 같은 구조는 글자 그대로의 단일체 건축이 될 수 있다. 그런 형태는 속이 들어찬 입체형태 안의 빈 공간에서 거주가 가능하지만, 건축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프로그램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외피의 형태적, 구조적 자율성은 장 누벨의 동경 신국립극장



<그림 8> Jean Nouvel, 동경 신국립극장 계획안 단면도(1986)

계획안(그림 8)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건물에서 누벨은 전통적인 건축적 해법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추를 배제하였다. 즉 그는 건물을 설명함에 있어 벽, 입면, 정면 등의 전통적인 건축 용어로부터 벗어나 도가니, 악기상자, 금고, 박스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장 누벨은 “우리 프로젝트는 3가지의 중요한 대상을 내포한 검은 화강석의 단일체이다. 이 건물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신비로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감추기도 함으로써 자신을 마술사자로 인식시킨다.”고 기술하면서, ‘상자와 같은 건축(box-like architecture)’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건축적 상자(architectural box)’ 또는 ‘상자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box)’을 말하고 있다.¹⁵⁾ 장 누벨은 이 건물에서 근대건축의 투명성을 불투명으로 치환했는데, 여기서 투명성은 실제적인 유리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그림 9> Paul Andreu, National Grand Theater of China, Beijing (2005)

합리적 형상화를 통한 인상의 투명성까지를 포함한다. 폴 앙드류의 북경국립극장(그림 9)의 경우에도 내부의 복합적인 공간구성은 외부의 단일 표피구조에 의해 감추어진 채 장 누벨의 ‘건축적 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단일체 건물들은 무모하게 고풍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견고한 표면과 속이 빈 본체간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자적 표현과 현상간의 불일치, 외부와 내부간의 긴장상태는 창조적인 건축을 위한 촉매로서 체계적으로 탐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부와 외부의 긴장상태는 대부분의 단일체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단일체 건축에서 내부공간과 건물의 형태와의 관계는 크게 <표 3>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유형	특성	대표사례
분리형	건물 형태로부터 내부공간의 구성을 전혀 유추할 수 없는 유형	Rafael Moneo, Kursaal Cultural Center and Auditorium, San Sebastian, Spain(1999)
절충형	내부공간의 형태를 어렵게 보여주면서 전체 건물의 형태를 하나의 매스로 정리한 유형	Jean Nouvel, 동경 신국립극장 계획안 (1986)
일치형	비교적 내부에 포함되는 공간 또는 대상을 마치 금형을 뜻듯 이 그대로 형상화하되 단지 호용 재료만이 덧붙여진 유형	Herzog & de Meuron, Signal Box, Basel (1995)

<표 3> 내부 공간과 건물 형태와의 관계 유형

이런 단일체적 조형 성향은 건축의 외부 형태를 떠나 실내공간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일체적인 접근의 범위는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즉 내부에 거주기능이 있는

13)르 꼬르뷔지에(장성수/장성주 역), 앞의 책, p. 37.

14)유진상, 근대 이후 건축외피 표현방식·재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11호, 2003, p. 221.

15)Rodolfo Machado & Rodolphe el-Khoury, 앞의 책, p. 17

단일체의 구조물로서 실내공간에 하나의 오브제적 요소로 자리하는 경우, 실내공간이 천장, 벽, 바닥 등의 구분이 없이 연속된 면으로 구성되어 단일구조체로부터 발전된 모노코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구성에서도 전체적인 구성이 하나의 단일체로부터 발전되어 디자인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에 관한 세밀한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5. 결론

현대건축에 여전히 형태를 중시하려는 경향과 형태의 의미를 초월하려는 두 경향이 공존하고 있는 와중에 단일체에 대한 회귀현상은 과도한 건축적 장식을 없애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하고, 동시에 건축의 정통적 계율의 근거를 거듭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런 단일체 건축은 형태적 산만함이나 분열, 이론에 치중한 형태적 복합성의 난해함을 대치하려는 의도이며, 현시대의 분절화, 불확정성, 유동성 등이 강조되는 다소 아방가르드적인 건축이론이나 작품경향에 대해 건축의 위상과 자율성 확립을 위한 반발로 이해된다.

이런 단일체 건축은 20세기의 모더니즘이나 미니멀리즘과 연관해서 볼 때 여전히 애매하고 불확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단순하고 경제적인 구조를 빈틈없는 외피로 감싼 형태적 엄격함을 보여주면서 인식이 용이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건축이다. 이런 단일체 건축은 외관의 추상적 형태를 이용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거나, 크기나 스케일을 과장함으로써 존재감을 강화시키기도 하며, 색, 재료, 마감, 단면형태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중재하는 표피를 전략적으로 탐색하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시공기술과 재료의 사용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며 조소적 특징을 강조하려는 조형의지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이런 단일체 건축이 하나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다중적이고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건축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단일체적 성향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임석재, 형태주의 건축 운동, 시공사, 1999
-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 Le corbusier(장성수, 장성주 역),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태림문화사, 1999
- Philip Jodidio, Architecture Now, Taschen, Köln, 2002
- Philip Jodidio, Architecture Now 3, Taschen, Köln, 2004
- Rodolfo Machado, Rodolphe el-Khoury, Monolithic Architecture, Prestel-Verlag, New York, 1995
- Steven Hall. El Croquis, Madrid, Spain, 2003
- Toshiko Mori, Immaterial/Ultramaterial, George Braziller, New York, 2002.
- 한형욱, 근현대건축에 있어 표상의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론, 1999
- 남경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테리어의 표현 변화, 대한건축학회지 제 48권 3호, 2004
- 서정연, 새로운 조형현상으로서의 표피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0호, 2003
- 신정화,/김문덕, 헤르조그와 드 뫼른의 건축언어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4호, 2004
- 신흥경/김봉재, 단순성의 개념으로 본 실내공간 표현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0호, 2003
- 유진상, 근대 이후 건축외피 표현방식 재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11호, 2003
- 윤재은, 해체주의 건축의 외적 조형성과 내적 조형공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4호, 2000
- 이정열, 현대건축 표피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0호, 2003
- 장훈익/김영태, 현대건축에 있어서 탈정형적 공간구성의 다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2호, 2004
- 정광량, 건축기술의 표현, 대한건축학회지 제 48권 3호, 2004